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경실련의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 3년 시정평가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경실련, 취임 3주년 강기정 시장 직격... “불통 행정”

광주시민단체가 취임 3주년을 맞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민선 8기 시정에 대해 “불통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민선 8기 강기정호 3년 시정평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국회의원 3선, 청와대 정부수석 등을 역임한 강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민선 8기 광주시는 불통과 독선, 독단이 난무했다”며 “소통의 통로는 많은 듯 있었으나 대부분 한 방향으로만 형식적이었고 포용과 공감은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기조는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강 시장은)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가 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각종 위원회에서 배척하고 측근 인사를 강행했다”며 “거친 언행도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12개 사업 자체 분석... 약속 어기고 과제 산적 “자료·실적 공개 소극적... 홍보도 해명도 못해”

단체는 광주시가 진행 중인 12개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크게 질타했다. 2024년 말까지 도로 대부분을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점, 2026년 개통 계획도 물거품이 된 점 등을 꼬집었다. 백운광장 지하차도와 연계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에 대해서는 내용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평가했다. 대단위 공동주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교통문제,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 문제 등에 대한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북합쇼광물 유치와도 연계된데다 ‘3곳이나 필요한가’와도 맞닿아있어 입장이 필요하다고도 꼬집었다.

지산IC 진출입로 개통 문제에 대해서는 ‘강 시장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 변수가 적지 않았다’며 97억원을 투자했음에도 개통되지 못한 점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을 촉구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예산 탓에 무산된건지 지연된건지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는 기본계획과 사업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상

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 갑갑이 행정 대표사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기준 140만명 선이 무너져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변죽만 울리다 이제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넘어갔다’고 총평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중요 현안에 밀려 시민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광주시의 채무 비율이 지난해 결산 기준 23.10%,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며 재정건전성 위기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서재형 광주경실련 시정평가단장은 “민선 8기 강기정호는 시정평가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 각종 자료와 실적 공개에 소극적이었고 잘한 점을 내놓고 홍보하지도 못했다.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시, 폭염 속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 챙긴다

차양모자·형광토시 등 보호용품 꾸러미 600여명에 전달

대체일자리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건강·안전 동시 확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여름철 안전을 위해 보호용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대체 일자리 지원을 병행한다.

광주시는 7월부터 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 600여명을 대상으로 차양모자, 형광토시, 쿨링쿨티슈, 쿨타월, 쿨파스, 발레약,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등이 포함된 보호용품 꾸러미를 배부한다.

보호용품은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실용성과 활용도를 기준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형광토시를 포함해 야외 활동시 시인성을 높였다.

해당용품은 각 자치구를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안부 확인은 물론 온열질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폭염과 교통사고 위험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가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호 대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여름철 대체 일자리인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참여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재생활동단’은 폭염 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에 폐지 수집을 중단하고 환경정화 활동이나 재활용품 선별 등 실내·그늘 아래에서 수행 가능한 대체 업무를 맡는다. 참여자에게는 월 20만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박도일 기자

이 대통령-트럼프, 7월 말 한미 정상회담 추진 조율

루비오 방한해 논의할 듯... 관세 협상·국방비 증액 핵심 의제

한국과 미국이 7월 말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방식이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넷째 주를 목표로 미국 측과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8월 이전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하면 구체적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당초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발 변수로 연기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세 협상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유예기간이 다음 달 8일 만료되는데, 최근 미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 기반 연장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비 증액 문제는 난제다. 백악관은 나토 국가들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약 66조원 규모다. 이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국방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약 120조원이 된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와 방위비, 국방비 증액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협상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의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카드·계좌입금 가능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기부금 납부
(계좌입금, 신용카드, 간편결제)
↓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답례품 주문하기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